

신품종 자두가 잘 익었네?... 젤리하트 수확



27일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신품종 자두 '젤리하트'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코로나19 여파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영업점만 해당... 내달 8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7일부터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시행 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12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과 수도권 소재 영업점의 영업 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해 왔으며, 27일부터 비수도

권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음달 8일까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익산 대전, 세종지역 영업점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하며, 영업시간 단축은 종료시점인 8월 8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단, 위 지역 외에 도내 2단계 지역들은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마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JB GYM,

안골지점, 경원동 지점, 모래내 지점에 별도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본점 인력을 분산 배치해 분리 근무도 실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주말사이 전북에서도 올들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상황변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조정됐지만, 안전이 우선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도민과 고객들의 금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익산 유휴레스47 8월 5일까지 중기 장기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유휴레스 47 모델'은 주식회사 랜드미드가 제공하는 아파트로 익산시 모현동 238-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1세대(확정추천 8세대 + 예비추천 3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청약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의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소기업 제작,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s.go.kr/sanhak.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신력 높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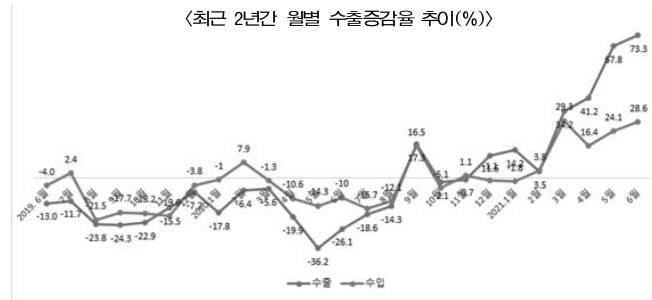
기존 비축농산물 수입은 식약처 지정 국외의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성적서를 징구하고 식약처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나,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쌀, 콩, 마늘, 양파, 배추 등) 약 70만 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

aT 실험실은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도 매년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로 신뢰를 확보해 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통관 시 무작위표본

6월 전북 수출 7억377만 달러... 증가치 '최대'

전년 동월대비 73.3% 증가 주력 품목 대부분이 크게 늘어



6월 전북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3%가 증가한 7억 377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 67.8%가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한달만에 경신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36.9%가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전북 수출의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게 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6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3% 증가한 7억 377만 달러, 수입은 28.6% 증가한 4억 973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2억 64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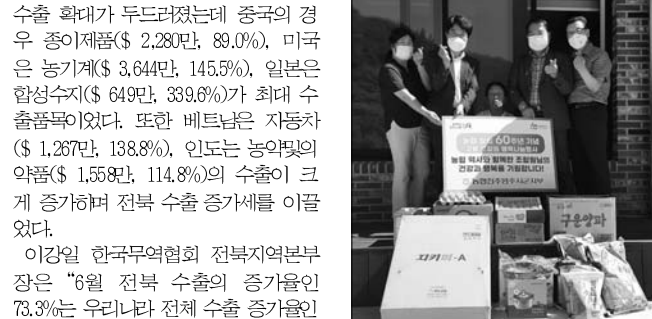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농약 및 의약품, 동제품, 자동차가 1~3위를 차지했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농약및의약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71.7% 증가한 7,343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동제품의 경우 120.2% 증가한 5,73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자동차(5,687만 62.1%), 건설광반기계(5,613만 27.9%), 합성수지(5,326만 7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처분소득 외에도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제품의 경우 120.2% 증가한 5,73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자동차(5,687만 62.1%), 건설광반기계(5,613만 27.9%), 합성수지(5,326만 7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처분소득 외에도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6월 전북 수출의 증가율인 73.3%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39.8%의 약 2배 수준으로 고무적"이라며 "상반기 기준 수입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무역 구조 특성상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최고령 조합원에 감사의 마음 전달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와 구이농협(조합장 안광옥), 화산농협(조합장 김중택)은 27일 지역 내 최고령 조합원 위택식(105), 장인태(98) 어르신을 찾아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 역사와 함께하며 헌신하신 고령 조합원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협과 함께한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송혁 지부장은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오신 농업인과 고령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백신 후유증 '하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아나파스면NH국민안심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백신 후유증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아나파스면NH국민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우려되는 후유증 중 하나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을 일컫는다.

이 상품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출시된 상품으로 2천 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에 0세에서 8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환정) 200만원을 지급하고,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이 1년인 정기보험 상품이다. 상품가입은 스마트폰으로 농협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바일 청약을 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사무소를 방문해 가능하다.

이숙 총국장은 "신상품인 '아나파스면NH국민안심보험' 가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4대 보험, 온라인 상시교육으로

국민연금, 과징 개설행... 포털·유튜브 통해 수강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누구나 쉽게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상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제도 이해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방법 등 구성됐으며, 신고방법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수강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소득 총액신고' 및 '사업장 성립·취득신고서 작성' 테마교육을 신설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그간 4대 사회보험 교육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에만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7일부터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및 공단 유튜브



농협 남원시지부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와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은 지역 내 고령 조합원을 찾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해 농협 60년 역사와 함께한 농업인을 기념하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취지로 추진되었다.

권오정 지부장은 "농협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 영농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관심과 도움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와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은 농협창립 60주년 맞아 27일 동계농협 최고령 조합원 농가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로 92세인 양병로 조합원은 지난 60년간 농협과 함께하면서 농협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몸으로 겪은 산 증인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농협·고산농협, '이심점심' 나눔 활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7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한정희)과 함께 완주군 고산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이심점심(이심點心) 중식지원 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 행복나눔봉사단 회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배추김치, 양파김치, 삼계탕을 직접 만들고 할 밥을 손수저어 관내 고령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여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김윤상 기자